

# 푸코신부

(1858 스트라부르그 - 1916 알제리)

샤를르 드 푸코, 사치와 안락, 방탕한 삶에서 선교와 은수생활로 그를 데려간 영적 여정을 따라가 보면 우리 시대에 예언적인 길을 걸은 흔적을 본다.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일상적이고 숨은 생활을 전적으로 본받으면서, 마지막 자리를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찾으려는 나자렛의 숨은 생활을 강조했다. 이런 인물은 평신도로서 일상 안에서 복음을 입증해야하는 도전에 항구하게 대면해야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하게 말한다. 그 외에도 복음을 철저하게 재발견하라는 강한 일깨움이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 특히 가난한 이들과 만남에 열려있고 근면한 태도로 살라는 일깨움이다.

푸코신부로부터 영감을 얻는 단체, 협의체들은 많다. 어느 하나도 직접 창설한 단체는 없지만 샤를르형제는 전 생애 동안 선교사이며 은수자 형제들의 공동체를 기도하고, 꿈꾸고, 회칙을 썼다. 우리가 그의 영성으로부터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역사, 그의 기록들을 접했을 때부터 그와 일치(동질)감을 인식했다.

그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특별히 전적으로 “우리 것”이라고 느끼는 몇 가지 예언적 메시지를 인용해보자.

## 은수자와 선교사 (Monaco e missionario)

이 두 성소는 지난 몇 세기 동안 교회 안에서 서로 합치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은수자이거나, 아니면 선교사였다. 샤를르 푸코는 이 두 면을 멋지게 이어놓았다. 그에게 성체성사는 모든 것이었다. 시간과 수고를 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잠기는 것은 가장 강렬한 끌림이었다. 동시에 그의 마음은 각 사람을 위한 연민으로 가득했고 그의 은수처는 모두에게 열려있었다. 샤를르 형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금이나마(음식, 약...) 나누기 위해 맞아들이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마음의 긴급함은 삶으로 복음을 비추는 일이었다. 선함으로, 우정으로, 모두에게 활짝 열린 마음, 참 형제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 새로운 형태의 관상 (Una nuova concezione di contemplazione)

푸코신부에게 관상이란 하느님, 사람들, 현실 이 모든 것에 대해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기 위해 복음의 샘에서 항구하게 양분을 취하는 것에서 의미를 얻는다.

오랜 시간의 성체조배와 복음 안에 잠김이 푸코신부를 참 은수자, 선교에 잠긴 관상자가 되게 했다.

## 새로운 형태의 선교

이것은 예수님의 생활양식이다. 곧 사람들 안에 이미 복음이 현존해 있음을 인식하며 가난, 언어, 사고방식 안에 스며들고, 존중하고, 나누면서 그들과 할 수 있는 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뚜아렉인들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묻는 한 의사에게 푸코신부는 “소박하고 친근감 있고 그들에게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서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을 얘기할 때에도 미소 짓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언제나 미소 짓습니다. 미소는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서로를 잘 이해하게 하며 미소는 참 애덕입니다.”